Metamorphosen

- □□

정보

개요
곡명: Metamorphosen, TrV 290, AV 142
작곡가: Richard Strauss (1864–1949)
장르: 23성부 독주 현악을 위한 연속 악곡
작곡 시기: 1944년 구상에서 1945년 3월 13일 총보 착수와 4월 12일 완성까지
초연: 1946년 1월 25일, Zürich Tonhalle 소연주회장 , Collegium Musicum Zürich, Paul Sacher 지휘 성격: 느린 애도에서 중간부의 가속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느린 시간으로 돌아오며, 끝에서 Beethoven의 Eroica 장송행진곡을 불러오는 단일 연속 구조

Strauss의 Metamorphosen 은 관현악의 큰 덩어리보다 서로 독립적인 현악선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만든다. 최종 악보는 바이올린 10, 비올라 5, 첼로 5, 콘트라베이스 3의 23개 파트로 쓰였다. 공연에서는 이 파트를 오케스트라 현악 섹션이 나누어 연주하기도 하며, 후대에는 7중주 실현판도 만들어졌다 . 따라서 ‘현악 오케스트라 곡 ’이라는 음향적 인상과 ‘23개의 독립 파트를 위한 악보 ’라는 원래 설계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의뢰에서 자필 총보까지

Paul Sacher의 의뢰는 1944년 8월 28일 Karl Böhm을 통해 Strauss에게 전달된 것으로 정리된다. Strauss 는 9월 30일 Böhm에게 약 11명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Adagio 를 쓰고 있으며, 뒤이어 Allegro 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 편지는 최종 편성과 형식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작품이 확대되기 전의 구상을 보여 주는 자료다.

Strauss는 1945년 3월 13일 자필 최종 총보를 시작해 4월 12일 Garmisch에서 마쳤다. 별도의 짧은
악보에는 3월 31일 날짜가 적혀 있고, 5월 10일 Willi Schuh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Studie für Solostreicher 23stimmig 를 완성했다고 알렸다. 짧은 악보의 날짜와 최종 총보의 날짜가 다르므로, 둘을 같은 작업 단계의 다른 표기로 합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제목의 배경을 Goethe와 연결하는 설명도 자료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Mark Austin은 Strauss가 전쟁기 겨울에 Goethe 전집을 읽고 시를 스케치북에 옮긴 정황이 제목과 발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제안한다. 반면 Goethe 독서와 작품의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작곡가가 명시했다는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을 변형 기법의 이름으로만 해석하거나 , 반대로 Goethe의 뜻으로 단정하는 양쪽 모두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가지 악보와 서로 다른 연주 조건

원작의 23개 파트는 각각 독립된 선율을 갖는다. Boosey & Hawkes는 이를 10대 바이올린, 5대 비올라, 5대 첼로, 3대 콘트라베이스로 명시하고, 오케스트라 현악 섹션이 파트를 분담해 연주하는 관행을 안내한다. 어떤 파트는 다른 선율과 겹쳐 음량을 보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현악 합주 파트로 적힌 것은 아니다.

1945년 3월 31일의 짧은 악보는 바이올린 2, 비올라 2, 첼로 2, 콘트라베이스 1을 위한 축약된 설계다. 이 악보는 1990년에 발견되어 Bayerische Staatsbibliothek München에 들어갔고, Rudolf Leopold가 짧은 악보와 최종 총보를 함께 참고해 1994년 7중주 실현판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Leopold 판은 Strauss가 별도로 승인한 두 번째 최종본도, 23파트 원작을 기계적으로 줄인 복사본도 아니다. Schott가 안내하는 24분 표기와 Nash Ensemble의 25분 46초 녹음은 이 후대 실현판의 대표적인 시간이다.

느린 선율에서 중심부의 가속으로

음악은 낮은 현의 어두운 진행과 비올라의 모티프로 시작한다. 여러 선율이 서로의 음형을 받아 변형하면서 한 방향으로 모이고, 첫 번째 절정 뒤에는 Etwas fließender 라고 표시된 더 유동적인 구간이 열린다. 이때의
변화는 주제가 완전히 교체되는 것보다, 같은 음형이 다른 음역과 결합으로 모습을 바꾸는 과정에 가깝다.

분석 연구는 이 흐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ntonioli는 1–81마디를 안정된 으뜸음이 분명하지 않은
도입부로 보고, 82마디 이후를 Etwas fließender 와 새로운 주제 영역으로, 145마디부터를 E장조 영역으로 분석한다. 213마디의 Agitato 에서는 박동과 음역의 압력이 높아지고, 345마디 부근의 C장조 구간을 거쳐 390마디에서 Adagio tempo I 가 돌아온다. 이 마디 구획은 총보의 독립된 악장 표제가 아니라 특정 분석 틀에 따른 표지이므로 , 큰 음악적 흐름을 설명하는 참고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앙부의 가속은 단순한 속도 변화가 아니다. 낮은 현과 높은 현의 선이 빠르게 교대하고, 짧은 음형이
겹치면서 앞부분에 있던 느린 호흡이 압축된다. 격렬한 진행이 멈춘 뒤에는 높은 음의 지속과 정적이 나타나고, 처음의 느린 시간으로 돌아갈 공간이 마련된다. 이 대비 때문에 종결부의 인용은 갑자기 붙은 외부 장식이 아니라, 앞에서 변형되어 온 선율과 기억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들린다.

Eroica와 In memoriam!

총보 마지막 부분에는 Beethoven 교향곡 제 3번 Eroica 의 장송행진곡 선율이 인용되고, 끝 페이지에는 In memoriam! 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다. 인용은 분석 연구에서 대체로 502마디부터 시작하는 코다로 확인된다. Strauss가 전쟁 말의 독일 문화 파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시대적 정황과 Munich를 애도하는 Trauer um München 스케치는 이 종결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지만, 특정 도시나 사건만을 위한 음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없다.

이 작품의 의미는 초연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았다. Berliner Philharmoniker와 여러 기관의 해설은 폭격으로 사라진 오페라하우스와 문화 기관, Beethoven의 장송행진곡 , In memoriam! 을 하나의 애도 맥락으로 묶는다. Neil Gregor의 수용 연구는 1950–60년대에 작품이 옛 독일 문화에 대한 향수와 연결되어 들리다가, 이후
전쟁의 외상과 문화적 파괴를 중심으로 읽히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한다. 이는 작곡가의 단일한 의도를
확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청취 방식이 변해 온 역사다.

현악 23선이 만드는 음향

관악기와 타악기 없이 현악기만 사용하지만 , Metamorphosen 은 균일한 현악 합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23 개의 선이 서로 다른 호흡과 음역으로 움직이며, 한 선이 앞에 나올 때 다른 선은 화성의 표면이나 지속음으로 물러난다. 오케스트라 섹션으로 증원하면 이 선들이 넓고 두터운 음향으로 합쳐지고, 독주자 편성에서는 각 선의 시작과 끝, 미세한 불균형이 더 가까이 드러난다. 7중주 실현판은 이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하며, 리허설에서 지휘와 실내악적 협력의 비중도 달라질 수 있다.

초연과 녹음의 시간

세계 초연은 1946년 1월 25일 Zürich Tonhalle 소연주회장에서 Paul Sacher와 Collegium Musicum Zürich가 맡았다. Hyperion의 해설은 Strauss가 초연 전 리허설 일부에 참여했다고 전하지만, 참여 범위는 자료마다 ‘마지막 리허설을 지켜보았다 ’거나 ‘리허설에 참여했다 ’고 다르게 표현된다. 미국 초연은 1947년 1 월 3일 Serge Koussevitzky와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로 기록된다.

출판사와 기관은 23파트 원작의 대표 시간을 대체로 25–26분으로 안내한다. 실제 녹음은 버전과 판본, 연주 인원, 실황 여부에 따라 더 넓게 벌어진다. Furtwängler의 1947년 자료는 23분대, Karajan의 1980년 녹음은 26분 11초, John Wilson과 Sinfonia of London의 2021년 녹음은 약 28분 14초로 기록되어 있다. 7중주 실현판을 사용한 Nash Ensemble은 2006년 4월에 녹음해 2007년 발매했으며 트랙 시간은 25분 46초다. 이 수치는 하나의 표준 템포를 정하는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연주 조건이 남긴 기록이다.

남겨진 작품과 자료

초판은 1946년 Boosey & Hawkes에서 나왔고, IMSLP에는 총보 B&H 9118과 파트 B&H 15957이 식별되어 있다. 자필 총보는 Paul Sacher Foundation Basel과 Richard Strauss Archive Garmisch에 나뉘어 전해지며, 원고마다 페이지 구성과 수정 상태가 다르다. 이 사본들의 관계와 1945년 날짜는 자필 원고
연구에서 대조되어 왔고, 하나의 ‘완벽한 원본 ’만 남아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Metamorphosen 은 전쟁의 폐허를 직접 묘사하는 교향시가 아니다. 독립된 현악선이 느린 애도와 가속, 정적을 거치며 서로의 모양을 바꾸고, 마지막에 Eroica 와 In memoriam! 을 남긴다. 제목과 Goethe의 연관, Munich 스케치, 독일 문화의 상실이라는 해석은 서로 다른 연구와 해설에서 나온 범주이므로 , 악보에 확정된 사실과 수용의 역사를 구분해 읽을 때 작품의 복합성이 더 분명해진다 .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Metamorphosen

Schott Music, 7중주 실현판 안내

San Francisco Symphony 프로그램 노트

Berliner Philharmoniker 해설

Hyperion 작품 해설

- Hyperion Nash Ensemble □□
- Heine·May, □□ □□ □□
- Mark Austin, Goethe□ `Metamorphosen` □□
- IMSLP, `Metamorphosen`